

---

## 새로운 신좌파

호세 나탄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남아메리카 코노수르 지역 국장

---

원제와 출처: José Natanson, “La nueva nueva izquierda”,  
*Nueva Sociedad*, No. 299, mayo-junio de 2022, pp. 25-34.

핵심어: 냉전, 좌파, 개혁, 라틴아메리카

세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소수 지식인과 예술가 집단의 다소 추상적인 제언에 그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좌파는 볼셰비키가 차르 군대를 패배시키고 러시아에 혁명 정권을 수립한 1917년부터 엄청난 추진력을 얻었다. 70년 동안 희망성쇠를 거치며 존재하게 될 라틴아메리카 혁명 운동의 출현이 가장 명백한 결과였지만, 1917년 멕시코 헌법부터 1918년 아르헨티나 대학 개혁이나 1925년 브라질 콜루나 프레스테스까지 겹보기에는 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도 볼셰비키 승리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알레호 카르펜티에르의 낭만주의에서 호르헤 아마도의 사회적 사실주의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지적 논쟁과 예술도 20세기 전반기의 혁명적 기후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투쟁과 권력의 장악이라는 구체적인 정치의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첫 번째 물결은 1960년대가 되어서야 나타났다. 20세기의 좌파나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 없이도, 확실한 라틴아메리카의 혁명인 1959년 쿠바혁명의 승리는 라틴아메리카 좌파로 하여금 상승 동력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할 것임에 분명했다. 에릭 홉스봄은 쿠바혁명의 매력을 이렇게 요약했다. “쿠바혁명은 낭만적인 정신, 산속의 의협심, 젊음의 이타적인 관대함을 지닌 전직 학생 지도자들, 그리고 룬바의 리듬에 고통치는 열대 관광 천국의 즐거운 마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sup>1)</sup>

쿠바를 필두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혁명의 시도가 확산했다. 아르헨티나 태생의 게릴라 요원인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의 거점이론(foquismo)이 그가 무명의 볼리비아 부사관에 죽임을 당함과 함께 모든 곳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란에 있어서 농촌의 구성요소가 도시의 구성요소를 압도하는 국가들에서 더욱 확산한 봉기들로 인해 혁명의 물결이 실질적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역을 뒤덮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도시의 익명성이 게릴라가 번성하여 눈에 띄는 정치적 타격을 발생시키기 위해, 또는 종종 실패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게릴라는 조직하기가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농촌에 기반을 둔 게릴라는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중앙아메리카 게릴라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오래 지속되고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좌파의 정치이론 논의는 부르주아 세력 및 포퓰리즘과의 타협을 포함한 점진적이고 선거주의 방법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무력을

1) E. Hobsbawm: *Historia del siglo xx*, Crítica, Barcelona, 2005, p. 439.

통한 총체적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의 개혁-혁명 긴장을 중심으로 조직됐다. 역설적인 것은 쿠바가 라틴아메리카 좌파 최초의 거대한 추진체 역할을 했지만 역내 다른 게릴라 운동이 쿠바의 권력 장악 모델을 성공적으로 복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비슷한 시기에 집권한 다른 라틴아메리카의 좌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집권을 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한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의 민주사회주의 말이다. (니카라과의 산디니즘은 반란의 길을 따랐지만, 쿠바 모델과는 매우 달리, 가톨릭과 중요한 부르주아 분파를 포함한 광범위한 다계급 전선을 형성했다). 결국 아옌데이즘-카스트로이즘 논의를 해결한 사람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였다. 아옌데가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육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피노체트는 대통령이 시도한 마지막 타협안이 실패했음을 보여주었다. 아옌데가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대통령궁에서 몇 시간 동안 저항한 후 결국 피델 카스트로가 선물한 소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은 라틴아메리카 첫 번째 좌파 물결의 궁극적인 역설을 내포한다.

## 2000년대 좌파로의 선회

좌파의 새로운 물결은 1999년 우고 차베스의 승리로 시작하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에보 모랄레스, 타바레 바스케스, 라파엘 코레아, 페르난도 루고의 승리로 계속되었다. 여기에 칠레의 중도좌파 정부들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좌파 물결의 조건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 즉 미국의 지정학적 정적으로서의 소련의 소멸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좌파 진영 내에서 또 다른 논쟁이 해결되어야 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혁-혁명 논쟁처럼 이 또한 혹독한 사건들을 통해 매듭지어졌다. 이는 1994년 1월 1일, 즉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이

치아파스의 7개 도시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고, 멕시코 정부에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유명한 라칸돈 정글 선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학교수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에, 검은색 방한모를 쓰고, 헤드폰을 목에 걸고 있던 마르코스 부사령관은 수백 년 동안의 원주민의 외침들을 일련의 연구된 상징적 행위들과(예를 들어, 사파티스타 운동의 반란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날에 일어났다) 농촌의 우화, 미화된 촌스러움의 이미지, 그리고 소비자사회, 국가 억압, 자본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 모두를 하나의 연설로 표현하는 문학적 재능과 결합할 줄 알았다. 사파티스타의 열풍 속에서, 글로벌 금융거래에 세금을 제안한 금융거래평가 및 시민행동을 위한 협회(ATTAC), 다보스포럼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정당과 사회운동의 만남인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그리고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르기의 저서들 및 나오미 클라인의 반세계화 베스트셀러들을 필두로 한 일련의 새로운 이론적 관점들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이 등장했다.<sup>2)</sup> (이러한 반항적인 움직임의 대부분은, 그 시절 프랑스제 스페인 예술가 마누 차오의 사운드트랙처럼, 제1세계 국가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그러나 사파티스타는 강령은 고사하고 가야할 방향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마르코스의 문구들로 목적의 부재를 덮는 유기적이지 못한 문화적 선봉대로서만 기능했으며, 마음을 동요시키는 낭만적인 울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다. “권력을 장악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자”는 사파티스타의 제안 앞에서, 당시의 진짜 좌파는 적어도 보다 구체적인 선거의 길에 반대했다. 브라질 노동당, 우루과이 광역전선, 칠레 사회주의, 볼리비아 사회주의 운동과 같이 어떤 경우에 좌파는 수년간 끈기 있게 당과 영토를 건설한 후에 정권

2) M. Hardt y A. Negri: *Imperio*, Paidós, Barcelona, 2000; N. Klein: *No logo*, Paidós, Barcelona, 2000.

을 잡았다. 다른 경우에는 우고 차베스, 라파엘 코레아, 그리고 부분적으로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처럼 예상치 못한 번개처럼 곧장 정권을 잡기도 했다. 그리고 에보 모랄레스 같은 일부 좌파 운동과 지도자들은 거리에서의 직접적 행동을 고전적인 선거 경쟁과 결합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콜롬비아와 페루를 제외한 모든 남아메리카 국가에서 정권에 오른 “신좌파”는 추상적인 토론보다 권력에 도달하는 것은 우선시했다. 이제 신좌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확실히 유리한 상황에서 다음 세가지를 결합할 수 있는 일련의 정책을 전개했다. 거시경제적 지속가능성(베네수엘라와 부분적으로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 거시경제의 운영이 양호했다); 포용에 대한 엄청난 추진을 가능케 한 광범위한 소득 이전 정책(특히 볼리비아 고원과 브라질 북동부와 같은 가장 불우한 지역에서); 그리고 긴 개혁 주기를 가능케 한 정치-제도적 연속성. 좌파의 다양한 구성원을 가른 실질적인 논쟁은 제안된 변혁들을 진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즉, 차베스, 모랄레스, 코레아처럼 국가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재설정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룰라 다 시우바, 키르츠네르 또는 타바레 바스케스의 방식대로 주요 연속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차베스주의와 룰라주의의 이분법으로 압축되는 이 논의는, 1960년대의 논쟁과 달리, 개혁의 깊이를 언급하지도(실제로 룰라 다 시우바가 코레아보다, 키르츠네르가 에보 모랄레스보다 덜 개혁적이었다고 주장할 방법이 없다), 개혁을 실행할 가장 좋은 방법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진짜 좌파가 실질적으로 전술을 논의하고 전진하는 동안, 사파티스타는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초기에는 엄청난 열광을 불러일으켰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결국 실망을 안겨주며 무너져갔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가 이끄는 좌파와 터무니없는 경쟁관계를 구축하였는데, 2006년

대선에서는 보이콧을 선언하여 민주혁명당(PRD) 후보인 AMLO가 우파에 패배하는 데에 일조했다. 오늘날 AMLO 정권에서 사파티스타는 “좋은 정부 위원회”를 통해 정부군이 용인하는 차이파스 주의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을 통치하고 있으며, 계속 유럽 배낭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 어떤 좌파가 돌아오는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길고 찬란했던 좌파 물결의 결말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환경의 변화,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정권의 자연적 탈진, 승계의 어려움, 그리고 우파 블록의 강화 가운데에 좌파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처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또는 파라과이, 브라질, 볼리비아처럼 쿠데타나 준(准)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에서 물러났다. 정권을 유지했을지라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처럼 권위주의적 국면을 희생해야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신자유주의와 달린 정치 생명을 공고히 하지 못한 우익 실험들의 실패는 좌파의 귀환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귀환하는 좌파는 과연 어떤 좌파인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좌파는 동질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새로운 시대에는, 완전한 범주를 이루지도 않고 두세 가지 직관을 기반으로 한 그룹도 아닌, 세 개의 다른 그룹이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의 권위주의적 좌파다. 우고 차베스와 다니엘 오르테가가 처음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되어 그들을 민주적 좌파라는 포괄적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했지만, 두 정권 모두 점점 더 권위주의 체제로 변해갔다. 이들은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정치 포로가 존재하고 야권 지도자들이 수감되는 국가들로, 국제적 감시 없이 선거를 치르고 결정적으로 무기한 재선을 시행하고 있다. (동일인의 권력 행사에 대한 시간적 제

한은 대통령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다.)

가장 새롭고 어떤 의미에서는 흥미로운 두 번째 그룹은 멕시코, 온두라스, 페루, 그리고 콜롬비아와 같이 좌파가 통치하지 않던 국가에서 통치하게 된 좌파다. 이들 국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이민(멕시코, 온두라스), 무역(모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시행 중) 또는 안보의(콜롬비아와 페루는 세계 양대 코카인 생산국으로 미국의 고정적인 우려 대상) 이유로 모두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로 여겨진다.

페루의 페드로 카스티요의 승리와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의 부상(어떤 의미에서 온두라스의 시오마라 카스트로의 승리 역시)은, 두 나라 모두에서 오랫동안 행해져온 게릴라들의 납치와 암살의 전력을 감안할 때, 좌파적 대안이 낳은 거부감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카스티요는 구조적 요인(경제의 개방적 성향과 역사적으로 강성한 우파)과 함께 페루가 이전의 급진주의 물결에서 예외였던 이유인 페루사회의 완고한 반공주의를 극복해야 했다(페트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선거 결과를 넘어 콜롬비아 좌파를 역사상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이 두 국가에서 좌파 대통령들의 승리는 더 빠르고 자유의 범위는 더 좁으며 걸림돌은 더욱 크다. 그 승리는 감히 예단을 내리기에 너무 최근의 일이다. 높은 지지율로 이미 임기의 절반을 넘겼고 2022년 4월 재선임 투표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경우는 다르다. 멕시코가 지정학적 위치나 규모, 역사에서 페루, 온두라스 또는 콜롬비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방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멕시코의 경험은 제2의 좌파 물결에서 진보적인 대통령이 거시 경제적 안정을 보증하는 동시에 대중과의 유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용한 사례다.

세 번째 그룹은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세,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그리고 예측이 맞으면, 브라질의 룰라 다 시우바로

구성된 돌아온 좌파다. 이들 정당이나 지도자들의 집권은 무엇보다 단기간 우파의 실정 때문이다. 20세기 말 길었던 신자유주의 하에서 일어났던 것과 달리, 최근의 자유주의 보수 정부들은 마우리시오 마크리, 세바스티안 피네라, 자이르 보우소나루, 그리고 볼리비아 정부에서처럼 재선이나 수용 가능한 후계자를 통한 연속을 이루어내지 못했다. 또한,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와 달리, 우파로의 전향은 포퓰리즘의 종식이라는 막연한 약속을 넘어서는 명확한 경제 프로그램을 동반하지 않았고, 개혁에 대한 무능함으로 인해 권력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폭넓은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

2000년~2010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도 복귀의 길을 열었다. 당시 좌파는 자신의 권력으로서의 행보가 단순히 원자재 가격 상승 덕에 일어난 일련의 우연들이 아니라 견고한 토대를 가진 사회적 대표의 표현임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번 권력으로서의 귀환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가? 전반적인 온건의 형태다. 불안정한 원자재 가격과 부실한 국고로 인해 약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던 경제적 제약들의 틀 안에서 국가를 운영하게 만들었다. 풍요보다는 결핍의 좌파다. 그리고 힘의 상관관계도 변했다. 보수 진영이 쪼개지고 방향성도 상실했던 이전 시기와 달리, 비록 선거에서는 졌지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많은 경우 극단적인 파시즘까지 경험한 우파가 야권을 이끌고 있다. 세 번째 좌파는 온건한 좌파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의 중도주의와 루이스 아르세의 온건주의는, 선거나 사법적 목적으로는 입후보할 수 없으나 해당 국가에서 공적인 삶은 영위하는 정치적 지도자들과의 동맹으로 권력을 잡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만큼이나, 위에서 언급한 여건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선거 또는 사법은 나타날 수 없지만 해당 국가의 공적 생활에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보수 성향의 해탈두 알크민 전 상파울루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룰라와 동행한 것은 노동당의 지도자도 중도로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잠정적인 좌파 분류에서 보리치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한편으로, 보리치를 좌파가 새로운 국가들의 하위 유형에 포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피노체트 독재가 끝난 이래로 진보주의는 기독교 민주주의와 연합하여 세 차례, 즉 리카르도 라고스와 두 차례의 미셸 바첼레트 임기 동안 칠레를 통치했다. 그러나 그는 피노체트가 무자비하게 구축한 경제 모델, 제도적 틀, 사회 체제와 명확한 단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부상하는 계기가 된 준(準)반란의 순간들을 포함하는 수준의 사회적 동원이 보리치 정부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세, 그리고 궁극적으로 룰라 다 시우바와는 다른 위치에 놓는다. 보리치는 카스티요나 페트로, 또는 2006년의 에보 모랄레스와 유사한 변화로서 취임했으며, 실제로 칠레는 역내 여러 국가에서 10년 전 일어났던 방식대로 제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차이점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의 헌법 개혁이 지도자들이 독자적으로 제안하여 거의 손수 작성하고 대중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던 것과 대조적으로, 칠레의 헌법 개정은 보리치 이전에 전개된 것이며, 그가 지휘하지도 않는다. 칠레의 도전의 복잡성은 변화와 지속의 매우 섬세한 혼합을 필요로 하며, 그 성공은 보리치의 양방면 모두에 관한 능력에 달려 있다.

## 우울의 위험

개별적으로 각 국가가 하나의 세계로 여겨지지만, 라틴아메리카는 큰 파도처럼 진행된다. 지난 30년에 걸쳐 라틴아메리카는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서 좌파로 전환했고 거기에서 짧은 우파의 시기를 거쳐 다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완전히 구분되는 좌파로 회귀했다.

이러한 패턴은 미국과 연관하여 지정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960년대와

70년대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급진화는 냉전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경쟁 구도에 새겨졌다. 당시 좌파 부상의 틀이 냉전이었다면, 2000년 좌경화의 틀은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생성된 온전한 미국 주도권의 단극 세계였다. 21세기 첫 10년간의 진보주의들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 첫 번째 책인 『신좌파』는 소련의 붕괴가 라틴아메리카 좌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을 제거했고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지정학적 자유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sup>3)</sup> 미국이 공산주의를 대체한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적, 특히 2001년 이래로 중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라틴아메리카, 특히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10~20년 전에는 CIA 작전이나 단순한 쿠데타를 통해 미국에 의해 차단되었던 좌파 지도자와 정당들을 선출할 수 있었다.

진보주의자들의 재집권, 또는 늦은 집권에 대한 현 배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양극 경쟁이다. 마치 배타성을 요구하듯 두 블록 중 오직 한 블록에 대한 지지를 규정한 냉전 시대와 달리, 현 경쟁은 더 모호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첫째, 두 경쟁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은 값싼 중국 노동력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으며, 중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이 폐쇄되면 도산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스왑 허용, 차관 제공, 또는 댐 건설에 앞서 자신도 거의 실천하지 않는 마오쩌둥 사상으로의 이데올로기적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아무것도 공짜는 없다는 인식은 심어주지 않는다. 에스테반 악티스와 니콜라스 크레우스가 주장하는 것처럼,<sup>4)</sup>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차원적 경쟁에서 대립을 상호의존과 결합시킨다. 무역 분야에서 요란하게 나타나지만, 군사적 측면도

3) J. Natanson: *La nueva izquierda. Triunfos y derrotas de los gobiernos de Argentina, Brasil, Bolivia, Venezuela, Chile, Uruguay y Ecuador*, Debate, Buenos Aires, 2012.

4) Leandro Darío: «Esteban Actis y Nicolás Creus: 'La relación entre Estados Unidos y China es el termómetro del mundo'» en *Perfil*, 1/1/2021.

있고 결정적으로 기술적 대결을 감추고 있다.

좌파의 새로운 부상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모호한 갈등이다. 냉전시대 국제관계 연구의 고전적인 시계 추 모형을 넘어서, 두 거대국과 방향성이 같은 의제들을 구축하는 것이 문제된 것이다. 미국과는 마약과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협력이라는 고전적인 서구의 의제, 그리고 오늘날 거의 모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는 투자, 인프라 및 무역 관련 의제. 후안 토카틀리안은 라틴아메리카의 전략을 “등거리 외교”로 정의했는데,<sup>5)</sup> 칠레 국제주의자인 카를로스 오미나미, 호르헤 에이네, 카를로스 포르틴은 이를 “적극적 비동맹”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한다.<sup>6)</sup>

결론을 지어보자.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주의 세력이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방식으로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짧고 격동의 시기를 지나, 좌파는 다시 한 번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국제 상황이 바뀌었고 여건은 이전 시대보다 여의치가 않다: 파괴적인 전염병의 여파, 잠복해있는 우파, 그리고 혁신적이지 않은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위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신좌파”의 성공은 무엇보다 서로 다른 사회집단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역량, 다양성, 페미니즘, 환경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관심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개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능력,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분쟁으로 열린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에 달려있다.

임태균 옮김

5) J. Tokatlian: 《La diplomacia de equidistancia, una propuesta estratégica》 en *Clarín*, 10/2/2021.

6) C. Fortín, J. Heine y C. Ominami (coords.): *El no alineamiento activo y América Latina: una doctrina para el nuevo siglo*, Catalonia, Santiago de Chile, 2021.